

# 신통찮았던 '추석 대목'

지역백화점, 선물세트 인기에 매출 4% ↑  
대형마트, 불황·휴업 겹쳐 명절 첫 감소

추석 '대목' 장사에서 지역 백화점은 비교적 '선방' 했지만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면서 허비가 잇달았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고, 대형마트는 대부분 저조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전체 매출이 지난해 추석 기간보다 4% 가량 증가했다. 특히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약 45%나 급증했다. 고가 선물세트 대신 5만~10만원대 실속형·중저가 선물세트가 지난해보다 60% 가량 잘 팔리면서 전체 선물세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측은 대량 구매하는 기업 등 법인 고객이 불황에도 수량을 줄이지 않았고 5만~10만원

대의 실속형 중저가 선물세트의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청과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무려 470%나 치솟았고 꽃감·송이·수삼·더덕(약 60%), 가공식품 및 생필품(약 57%), 멸치·김(약 33%) 등도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주류·한차는 매출이 5%가량 판매가 감소했다. (주)광주신세계도 같은 기간 백화점 전체 매출이 약 5% 가량 늘었다. 특히 넥타이, 셔츠 등 선물수요가 늘면서 남성류류 부문 매출이 약 10% 증가했다. 캐주얼 및 스포츠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영패션 특화관인 패션스트리트 매출도 35% 가량 늘었다. 반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4% 가량 줄었다. 주력 상품군인 한우(-

5%), 굴비(-5%)세트의 판매가 지난해 보다 저조해 선물세트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들은 추석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대형마트가 명절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살펴본 결과 추석 행사를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추석 때 보다 7.2% 감소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의무휴업을 실시한데다 불황으로 개인 고객들이 선물수요를 줄이고 구매금액도 낮췄기 때문이라고 마트측은 설명했다. 9만9000원짜리 실속형 정육세트가 잘 팔리면서 혼합정육세트 매출이 5.3%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했다. 견버섯류(-21.8%), 멸치(-17.8%), 조미김(-16.2%), 식용유(-15.3%), 꽃감(-14.6%), 배(-13.1%), 통조림·조미료(-12.2%), 굴비(-10.5%) 등 대부분의 선물세트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저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모피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7일까지 50억원 규모의 '명품 모피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 광주점이 진행했던 모피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도, 우바, 루치아노프, 부르다문 등 모피 대표브랜드 20여개가 참여해 최대 50% 까지 할인 판매한다. 사진은 한 여성 고객이 모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지역 저축銀 5곳 비교적 '선방'

무등·동양·스마트 당기순손실 폭 줄여  
대한 흑자전환...센트럴은 흑자폭 넓혀

전국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지역 저축은행들은 전년에 비해 손실 폭을 줄여가며 실적 향상과 자산건전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이달 내로 6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6%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개 저축은행 2011 회계연도(2011년 6월~2012년 6월) 결산공시를 집계한 결과 4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10월 중순에 후순위 예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 맞추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가 보유한 후순위 예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60억원

을 확충할 것"이라며 "오는 4일 납입 예정인 30억원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BIS비율은 5.24%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등·동양·스마트 저축은행도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당기순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전분기 11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41억원으로 손실 폭을 줄였고 동양저축은행은 -123억원에서 -73억원으로, 무등저축은행은 -70억원에서 -19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대한저축은행은 전분기 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 6억원 당기순이익을 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센트럴저축은행은 전분기 당기순

이익 5억원을 냈지만 이번 분기에 10억원으로 흑자 폭을 넓혔다. 부실한 대출자산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비율도 24.13%에서 9.45%로, 동양저축은행은 33.71%에서 24.52%로 대한저축은행은 16.09%에서 13.96%로 줄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0.32%)을 제외한 5개 저축은행 모두 감득기준(5%)을 넘겼다. 센트럴저축은행은 30.44%, 대한저축은행 9.45%, 무등저축은행 8.27%, 동양저축은행 7.05%, 스마트저축은행 5.67%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84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9월 자금수요 BSI는 11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해 추석을 전후한 자금수요를 반영했다. 9월 자금조달 BSI는 10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지역 기업 자금사정 여전히 어렵다

BSI 81...전달보다 3포인트 ↓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48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9월 자금사정 조사' 결과 기업자금사정 BSI(기

업경기실사지수)는 8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81로 전달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내려

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48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9월 자금사정 조사' 결과 기업자금사정 BSI(기

# 명품 아웃도어 최대 40% 저렴하게

광주신세계·롯데·현대백, 특판행사

가을 산행철을 맞아 (주)광주신세계를 비롯한 지역 백화점들이 일제히 아웃도어 행사에 돌입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물량이 늘어났다. 지난해 추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쌓인 경량다운 재고로 인해 양질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11일까지 1층 이벤트홀에서 '코오롱 스포츠·아웃도어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아웃도어대전에서는 컬럼비아,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K2,

라푸마, 에이글 등 아웃도어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지난해 상품과 올 봄·여름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각 브랜드들은 상품 물량을 전년 대비 최대 15% 가량 늘려 준비했다. 또 9층 특설행사장에서는 8일까지 코오롱 스포츠가 대규모 행사를 전개한다.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7일까지 1층과 9층에서 진행되는 스포츠·아웃도어 대전에서 20만원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

품권 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1일까지 8층 이벤트홀과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코오롱스포츠·아웃도어 대전'을 진행한다. 코오롱스포츠, K2 등 12개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며 이월상품을 위주로 정가보다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아웃도어 대전에서 20만~4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1만원과 2만원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11일까지 8층 특설행사장과 9층 이벤트홀에서 코오롱 스포츠 대전과 아웃도어 대전을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지역 소비자물가 지속 상승

물가지수 106.6...전달보다 1.2%·전년비 0.5% ↑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6.6(2010년 100 기준)으로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3% 올라 계속 둔화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06.5로 전달보다

1.2%, 전년 같은 달보다 0.5%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상추(151.9%), 호박(129.9%), 토마토(67.7%), 오이(62.9%), 파(39.8%), 시금치(36.3%), 풋고추(33.9%), 배추(28.9%) 등 채소류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닭고기(-9.3%), 식용유(-8.3%), 갈치(-8.0%), 화장비누(-6.1%), 명태(-5.1%), 마늘(-4.3%), 고추장(-4.0%), 조개(-2.6%), 치약(-

2.2%) 등은 가격이 내렸다. 전남지역의 9월 소비자물가는 107.4로 전달보다 0.8%, 전년 같은 달보다 1.9%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8.0으로 전달보다 1.1%, 전년 같은 달보다 1.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호박(163.2%), 상추(106.9%), 토마토(64.3%), 오이(60.9%), 시금치(35.8%), 파(35.5%), 풋고추(35.1%) 등 채소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포도(-25.4%), 갈치(-6.3%), 원정(-6.2%)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이은미기자 emlee@

**2012 Green 자전거축제**

2012년 10월 21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  
로드레이싱(경쟁 50km)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 후원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코스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

**신청안내(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참가자격
  - (1) 만18세 이상(1994년 10월 21일 이전 출생자)
  - (2) MTB자전거 (비키사이즈:26 또는 27인치, 비퀴폭:1.75인치 이상, 전/후 브레이크장착) 및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한 남녀
- 종 목 : 50km 로드레이싱 개인전
- 참가비 : 1인당 3만원
- 지급품 : 증식, 배민(2매1세트, 기록칩 부착), 간식, 참가기념품
- 접수기간 : 2012년 10월 11일(목) 17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bike.kjmedia.co.kr>)

**시상/내역**

구분	나이(만)	생년월일	시상순위	시상내역
남자	시니어부	18세~30세	1994.10.21~1981.10.22	1~6위
	베터부	31세~40세	1981.10.21~1971.10.22	1~6위
	마스터부	41세~50세	1971.10.21~1961.10.22	1~6위
여자	그랜드마스터부	51세 이상	1961.10.21 이전출생	1~6위
	베터부	18세~40세	1994.10.21~1971.10.22	1~6위
	마스터부	41세 이상	1971.10.21 이전출생	1~6위

상금 : 남자 -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4위(상품), 5위(상품), 6위(상품)  
여자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4위(상품), 5위(상품), 6위(상품)  
\* 대회당일 현장 시상식은 각부문 1~3위 만 시상합니다.